

##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과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박찬화\* 이윤선\*\*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and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Park, Chan Hwa Lee, Yun Seon

본 연구는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차이 나는지와 산후 1년 이후와 2년 이후의 양육스타일,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적하였다. 분석 자료로 한국아동패널 2008년(산후 1년 이내), 2009년(산후 1년 이후)과 2010년(산후 2년 이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 1,438쌍이었다. 측정도구로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K6), Pearlin, Lieberman, Menaghan과 Mullan(1981)의 자아효능감 척도, Bornstein 등(1996)의 양육스타일 질문지, K-ASQ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 t 검정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양육스타일, 그리고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양육스타일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거쳐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양육스타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산후 1년 이내 나타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주제어 : 어머니의 우울감,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 제 1저자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래교수(E-mail : chanhwap1014@hanmail.net)

\*\* 교신저자 :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E-mail : pica71@naver.com)

## I. 서론

여성이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매우 힘든 경험이 된다. 특히 산후에 경험하게 되는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더욱 어렵게 한다. 산후 우울감이란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로 약간의 기분변화에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조현주, 2005). 아기를 출산하면 산모의 50~80%가 일시적으로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2주를 넘기지 않는 반면 일반 산모의 10~15%는 출산 후 한 달이 넘어서도 우울감이 심각하게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 Hara & Swain, 1996).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쳐 영유아의 정서, 행동, 인지, 의사소통과 사회성 발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Mehta & Sheth, 2006). 어머니의 지지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 발달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김현, 2010; Lengua, Honorado, & Bush, 2007; Pungello, Iruka, Dotterer, Mills-Koonce, & Reznick, 2009; Tamis-LeMonda, Bornstein, & Baumwell, 2001). 즉,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공동주의를 통해 언어사용, 환경을 명명하는 모델링 역할을 하고 유아가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화하며, 부모-자녀 간의 편안하고 상호작용적 환경을 창출해내는데(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Tamis-LeMonda et al., 2001) 산후 우울을 겪는 어머니들은 짜증을 더 많이 내고 자녀에게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유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NICH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또한 부모 양육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신적 건강 손상 정도가 심각할수록 부모의 양육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Vondra & Belsky, 1993)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잠재적으로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Cooper & Murray, 1998)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후 우울감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조숙환과 주금정(2010)은 산전과 산후 모두 우울성향이 높은 어머니와 낮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6~8개월인 자녀와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질문하기, 위로하기, 의도 표현하기의 화행적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언어발달을 자극하는 화행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산후 10개월 때 어머니의 우울증이 36개월 때 영아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10개월 때와 36개월 때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in, Malmberg, Sylva, Barnes, Leach, & FCCC team, 2008) 산후 우울감과 영아의 언어발달을 연결하는 요인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임을 알 수 있다.

산후 우울감의 장기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몇몇 국가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Sutter-Dallay 등(2011)은 프랑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출산 6주 때의 산후 우울감은 영아가 만 2세가 되었을 때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하였다. Cogill, Caplan, Alexandra, Robson 그리고 Kumar(1986)의 연구에서도 영국 어머니들의 산후 1년의 우울감이 만 4세 유아의 IQ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산후 우울감의 장기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종단 연구들도 있다. Kurstjens와 Wolke(2001)의 독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

아가 20개월 때 어머니 산후 우울감은 영아가 만 4세, 만 6세가 되었을 때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호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Cornish 등(2005)도 영아가 4개월이었을 때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15개월 영아의 인지발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산후우울감이 영유아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 본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어머니 산후 우울감의 장기적인 영향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아는 만 2세경에 타인이 말한 단어와 비언어적인 단서를 이해하는 수용적 의사소통과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단어와 비언어적 제스처를 사용하는 표현적 의사소통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경험을 한다(Barnett et al., 2012). 특히 어린 영아일수록 감각기관 간의 협응이 원활하지 못하고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감각기관을 최대한 사용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아들이 보이는 의사소통적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는 바로 영아와 의사소통하는 성인일 것이다(김명순, 2010). 여러 연구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반응적이며 최적의 양육을 제공할 때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을 활발히 돕고 촉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Baumwell, Tamis-LeMonda, & Catherine, 1997; Nicely, Tamis-LeMonda, & Bornstein, 1999; Rollins, 2003; Tamis-LeMonda et al., 2001). 그러나 우울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해 (조숙환, 주금정, 2010)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영아의 언어산출 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산후 우울은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 중 자아효능감과도 관련이 있다. 자아효능감은 특별한 과제에서나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연관이 있다. 주어진 과제에서 자신이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판단하는 자아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큰 장애물과 직면했을 때 성공적 처리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는 반면 자아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잠재적으로 성취가능한 일에서조차 끈기가 부족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에서 성공하고자하는 노력의 정도를 예측한다(Bandura, 1982). 우울과 자아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우울한 어머니들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신이 양육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반면에 부모역할에서 자신이 효능적이라고 느끼는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아기와 균형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외적, 내적 자원을 융통성 있게 이용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높은 경우 양육행동이 더욱 긍정적이었고 반응적이었으며 영유아에게 별을 덜 주었고 영유아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었다(Johnson & Mash, 1989; Teti & Gelfand, 1991; Unger & Wandersman, 1985). 반대로 자아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들은 부모로서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쉽게 포기하게 되고 자기 의심으로 인해 자녀양육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엄격하게 자녀를 대하고 애정을 철회하고 강압적인 양육을 하게 된다(Coleman & Karraker, 1997; Jones & Prinz, 2005; Teti & Gelfand, 1991). 특히 영아와 어머니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과 언어적 모델, 반응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화운, 마지순, 2013).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어

머니의 자아효능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Giallo, Treyvaud, Cooklin & Wade, 2013; Teti & Gelfand, 1991). 오정윤과 심숙영(2012)은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사회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부모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영아의 언어발달과도 관련이 있다. Coleman과 Karraker(2003)는 19개월에서 25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의 표현·수용언어발달을 포함한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의 관계를 보았는데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영아의 언어발달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자아효능감은 양육행동이나 언어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실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그리고 영아의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자아효능감, 양육행동의 변인들 중 한두 개 변인들의 영향과 관련성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어떠한 경로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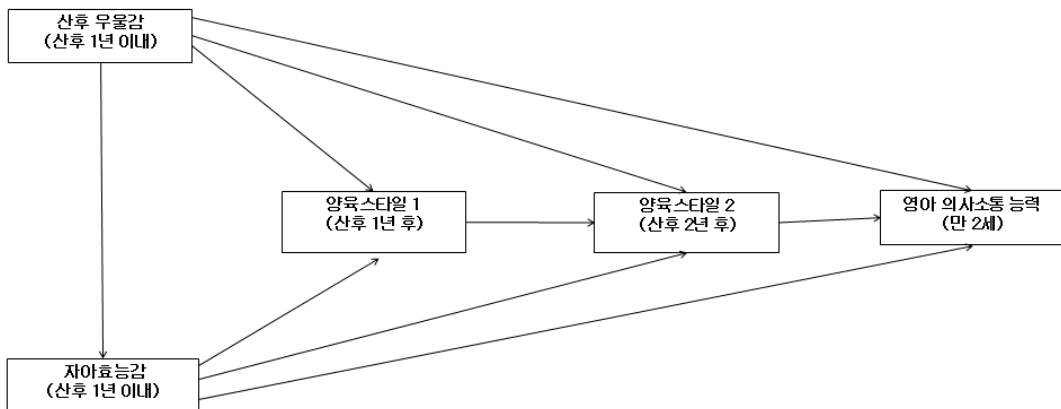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적 교환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육유형인 양육스타일과 자아효능감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 산후 우울감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자아효능감은 산후 1년 이내(2008) 자료로 산후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수집되었고 양육스타일에 대한 자료는 산후 1년 후(2009)인 산후 11개월에서 18개월, 산후 2년 후(2010)인 산후 23개월에서 31개월 사이에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산후 2년 후(2010)인 23개월에서 31개월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산후 우울감 측정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양육스타일을 측정하지 않고 산후 1년 후와 2년 후의 양육스타일을 본 점은 산후 우울감이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보기 위함이며 연속적으로 2년에 걸쳐 양육스타일을 측정하는 것은 민감한 양육행동은 12개월, 24개월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arnett et al., 2012)에 근거하였다. 즉 측정변인에 따라 측정시기를 달리 함으로써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규명하고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의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산후 우울감이 심한 어머니를 가진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양육스타일은 실제적 양육행동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한국아동패널에서 양육스타일로 명명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1.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거쳐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1>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우울감의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한국아동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함으로써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자료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2008년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목표 모집단은 2008년에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표본 크기는 2,000가구였으며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조사 유형 및 시기가 계획되어 실행되었다(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2008년(산후 1년 이내), 2009년(산후 1년 후)과 2010년(산후 2년 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 1,438쌍이었다. 분석대상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이었으며 우울 질문지, 자아효능감 질문지와 양육스타일에 관한 질문지의 모든 항목에 산후 1년 이내 부터 산후 2년 후 까지 빠짐없이 응답을 한 어머니들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아와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으며 어

머니의 산후 2년 이후 즉, 자녀가 만 2세가 되었을 때 인구론적 특징이다.

<표 1> 연구대상 영아 및 어머니의 인구론적 특징 (N=1,438)

변인		n (%)
영아 성	남아	743(51.7)
	여아	695(48.3)
영아 연령		23~31개월
영아 출생순위	첫째	669(46.5)
	둘째	597(41.5)
	셋째이상	168(11.7)
	무응답	4(.02)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33(2.3)
	26-30세	341(23.7)
	31-35세	730(50.8)
	35-40세	293(20.4)
	41세 이상	35(2.4)
	무응답	6(.4)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이하	400(27.8)
	전문대학 졸업	336(23.4)
	대학교 졸업	535(37.2)
	대학원 졸업	69(4.8)
	무응답	98(6.8)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468(32.6)
	미취업	970(67.5)
	무응답	
월 수입	2,000,000원 이하	288(20.0)
	2,000,001~4,000,000원	811(56.4)
	4,000,001~6,000,000원	244(17.0)
	6,000,001원 이상	91(6.3)
	무응답	4(.3)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우울감

어머니의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Kessler 우울 척도(K6)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K6는 Kessler 등(2002)이 일반인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로 미국 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서 사용되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K6는 지필식 자기보고 질문지로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안 느낀다’에서부터 ‘항상 느낀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총점 중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후 1년 이내(2008)자료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측정을 위해 Mainieri(2006)이 PSID-CDS(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Child Development Supplement)에서 사용한 Pearlin, Lieberman, Menaghan과 Mullan(1981)의 자아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를 한국아동패널에서 번역하여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자아효능감 척도는 지필식 자기보고질문지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09).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산출되며 점수 범위는 4~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효능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후 1년 이내(2008)자료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인 Cronbach  $\alpha$ 는 .75로 나타났다.

## 3)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실제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Bornstein 등(1996)의 양육스타일 질문지(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타일 질문지는 ‘사회적 양육유형’ 9문항, ‘가르치는 양육유형’ 5문항, ‘한계설정 양육유형’ 3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사회적 양육유형’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산후 1년 이내(2008)와 산후 1년 후(2009)에는 이중 3문항을 제외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 나는 내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산후 2년 후(2010)에는 9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문항 예: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PSQ는 지필식 자기보고 질문지로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PSQ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산후 1년 이내와 산후 1년 후에는 6~30점이며 산후 2년 후에는 9~45점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산후 1년 후(2009)자료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alpha$ 는 .83, 산후 2년 후(2010) 자료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4)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K-ASQ(Korean-Age & Stage

Questionnaire)의 5개 하위영역 중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K-ASQ는 질문지 형식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부모가 ‘예(영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고 ‘예’는 10점, ‘가끔’은 5점, ‘아니오’는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의사소통영역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고 한 문항 당 가능한 점수 범위는 0~10점, 가능한 전체점수는 0~60점까지 분포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해당연령을 고려하여 산후 1년 이내의 경우 4, 6, 8개월에 해당하는 검사, 산후 1년 후의 경우 10, 12, 14, 16, 18개월에 해당하는 검사, 3차 년도에는 22, 24, 27, 30개월에 해당하는 검사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산후 2년 후(2010)자료의 내적합치도인 Cronbach  $\alpha$ 는 .70이었다. K-ASQ는 진단검사로서 해당 개월에 따라 영아에게 적용하는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의 원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개월의 원점수에서 K-ASQ 해당 개월의 평균점수를 뺀 편차점수를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자아효능감은 산후 1년 이내(2008) 자료로 산후 4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수집되었고 양육스타일에 대한 자료는 산후 1년 후(2009)인 산후 11개월에서 18개월, 산후 2년 후(2010)인 산후 23개월에서 31개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그리고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은 산후 2년 후(2010)인 23개월에서 31개월 자료이다. 이후 연구결과의 표에서 어머니 변인의 1차년도 자료는 산후 1년 이내, 2차년도 자료는 산후 1년 후, 3차년도 자료는 산후 2년 후로 명시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측정 시기는 만 2세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과 Amos 18을 사용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1을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2와 그에 따른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 산출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및 양육스타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 1)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

어머니 우울감의 수준을 점수대로 나누어 정상, 경도/중등도 및 중도로 분류한 후 정상수준에 속하는 대상을 정상집단, 경도/중등도와 중도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울집단으로 나눈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우울 수준(산후 1년 이내)의 범위 (N=1,438)

유형		n	%
정상	정상 (6~13점)	1019	70.9
	경도/중등도 (14~18점)	327	22.7
우울	중도(18~30점)	92	6.4
	전체	419	29.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울집단이 29.1%이며 정상집단이 70.9%로 나타났다.

## 2)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어머니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양육스타일 및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 우울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검증 (N=1,438)

변인	정상집단(n=1019)	우울집단(n=419)	t
	MSD	MSD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15.87(2.46)	13.22(2.66)	18.11***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23.75(2.82)	22.38(3.10)	8.14***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34.75(4.37)	32.58(4.65)	8.38***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 (만 2세 )	2.39(10.49)	0.06(11.38)	3.73***

\*\*\* p<.0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2회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울감이 높은 우울집단에 속한 어머니들은 정상집단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더 낮고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덜 보였으며 우울집단 어머니들의 영아들이 의사소통능력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 2.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기 전에 영아

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 변인 간의 상관계수 (N=1,438)

Variable	1	2	3	4	5
1.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1				
2.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55***	1			
3.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28***	.29***	1		
4.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27***	.26***	.56***	1	
5.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08**	.10***	.13***	.18***	1

\*\* $p < .01$ , \*\*\* $p < .001$

## 2) 모형의 적합도 검증

그림 1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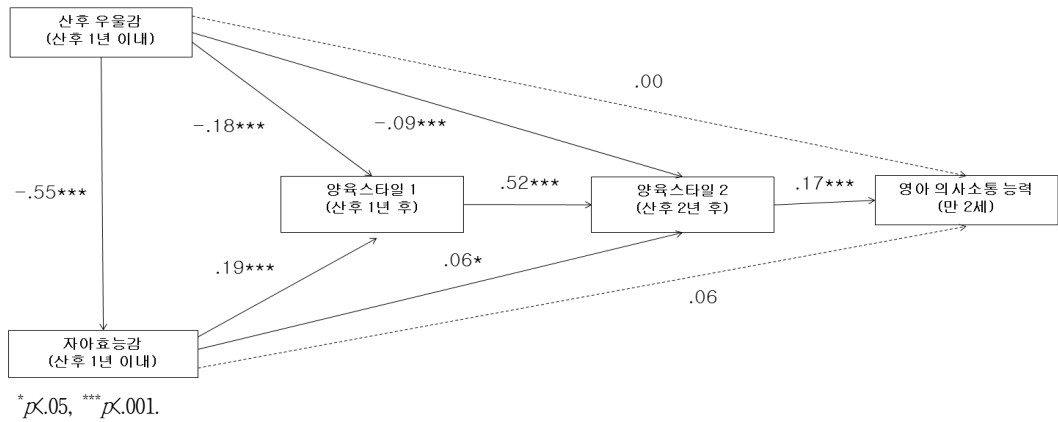
적합도지수	$\chi^2$	$df$	$p$	GFI	TLI	CFI	RMSEA
수치	.80	1	.37	1.00	1.00	1.00	.00
수용기준	$p > .05$			.90 이상	.90이상	.90 이상	.05 이하

설정된 연구모형이 측정치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적합도 지수인  $\chi^2$ 의 값이 .80이며 유의확률( $p$ )이 .37로 나타나 적합하며, GFI, TLI, CFI 값이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또한 .00으로 우수한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경로분석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표준화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연구문제 2의 가설 1이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1년 후와 2년 후 양육스타일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산후 우울감은 산후 1년 후 양육스타일과 산후 2년 후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넷째,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거쳐 산후 1년 후와 2년 후의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문제 2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그림 2>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어머니 우울감의 영향에 대한 경로

<표 6> 측정모형의 경로 계수

	경로	$\beta$	$B$	$SE$	$C.R.(t)$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00	-.01	.08	-1.0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06	.21	.12	1.74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17	.40	.06	6.15***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09	-.09	.03	-3.30***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06	.10	.04	2.36*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52	.80	.04	22.86***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18	-.13	.02	-6.03***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19	.20	.03	6.29***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55	-.36	.01	-25.11***

\* $p < .05$ , \*\*\* $p < .001$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산후 2년 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beta=.17, p<.05$ )이었으며, 산후 1년 후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beta=.09, p<.05$ ), 산후 1년 이내 어머니 자아효능감( $\beta=.08, p<.05$ ) 및 산후 우울감( $\beta=-.08, p<.01$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08, p<.05$ ).

<표 7> 주요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00	-.08*	-.08**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06	.03**	.08*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17*	-	.17*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만 2세)	-	.09*	.09*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09*	-.18**	-.27**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06*	.10*	.16*
양육스타일 2 (산후 1년 후)	→ 양육스타일 2 (산후 2년 후)	.52*	-	.52*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18**	-.11**	-.28**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 양육스타일 1 (산후 1년 후)	.19*	-	.19*
산후 우울감 (산후 1년 이내)	→ 자아효능감 (산후 1년 이내)	-.55**	-	-.55**

\* $p<.05$ , \*\* $p<.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의 정도를 살펴보고 우울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밝히며 산후 첫째 동

안의 어머니 우울감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산후 4-9개월 사이에 대상 어머니의 70.9%가 우울감이 낮은 정상집단으로 분류되고 29.1%가 경도/중등도 및 중도 우울감을 보였다. 이는 산후 9개월 때 37%의 어머니들이 경도 이상의 우울감을 보였다는 Paulson, Keefe 그리고 Leiferman(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산후 우울감을 겪는 어머니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양육스타일 및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차이에 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들이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아효능감이 더 낮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Bandura(1982)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효능감에 대해 낮게 평가를 하는 경우 쉽게 포기하고 실패를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할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했다. 역으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는 정의적이고 생리적인 상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양육에 있어서 낮은 자아효능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Bandura, 1982; Coleman & Karraker, 1997)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아효능감이 우울감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감 수준에 따라 양육스타일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스타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양육스타일은 사회적 양육유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태도와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의미한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즉,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산후 우울 성향이 있는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해 회피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과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Bigatti, Cronan, & Anaya, 2001)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우울감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영아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영아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중요한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흐름에 영향을 주며(Field, 2010) 산후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영아와 의사소통 시 말을 시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하였다(Zlochower & Cohen, 1996). 또한 산후 3개월 때 우울감을 보인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덜 놀아주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이 나타났고(Righetti-Veltema, Bousquet, & Manzano, 2003),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공동주의(joint attention)를 유지하지 못하고 영아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과 피드백을 덜 주었다(Henderson & Jennings, 2003). 이처럼 산후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가 말을 하거나 성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변인들 중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자아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어머니의 우울 간

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Sevigny와 Loutzenhiser(2009)의 연구, 그리고 국내 연구들(배정 이, 2002; 조희원, 우주영, 201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또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산후 1년 후 양육스타일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양육스타일 1), 산후 2년 후 양육스타일에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양육스타일 2). 이는 어머니의 우울감과 양육행동에 관한 46개의 연구들에 관한 메타 분석에서 어머니의 우울감과 부정적인 양육행동 간에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어머니의 반응성, 민감성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인들 중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양육스타일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산후 1년 후 양육스타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어머니의 자아효능감 → 양육스타일 1), 산후 2년 후 양육스타일에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어머니의 자아효능감 → 양육스타일 2). 이는 어머니의 효능감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박화윤과 마지순(2013), Coleman과 Karraker(1997), Jones와 Prinz(200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높으면 자녀의 양육에 대해 성공하고자 노력하며 자녀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Bandura(1982)의 자아효능감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아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다. 즉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가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사람들의 행동수정 과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과제 수행여부, 노력의 정도, 지속성, 개인의 깨닫는 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위에서 언급된 양육행동과 같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성취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 타인의 행동인 영아의 의사소통행동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및 양육스타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산후 4~9개월 때의 어머니 우울감 수준에 따라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어머니의 우울감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산후 1년 이내의 자아효능감과 산후 1년 후 및 2년 후의 양육스타일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은 높았다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오정순(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두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각 경로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양육스타일 1 → 양육스타일 2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양육스타일 2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즉 출산 후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고 이것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감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과 양육스타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들(Brennan et al, 2000; Bigatti et al., 2001; Field, 1995; Paulson et al., 2009)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후 10개월 때 어머니의 산후 우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36개월 영아의 표현언어와 이해언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산후 10개월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산후 36개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36개월 영아의 표현언어와 이해언어에 영향을 미쳤다는 Stein 등(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산후 12개월 때 어머니의 민감한 초기 양육행동은 이후 2년간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3세 유아의 표현적, 수용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Barnett 등(2012)의 연구결과와 산후 17~18개월 때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스타일과 문해지향 활동을 통해 영아의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에 영향을 미쳤다는 Zajicek-Farber(2010)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에서는 산후 우울감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효능감은 양육스타일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쳤다(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 양육스타일 1 → 양육스타일 2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 →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 양육스타일 2 →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즉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낮았으며 양육스타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낮은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해석해보면 개인의 생리적/정서적 상태는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Bandura, 1990) 우울감이라는 어머니의 정서적 상태는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며 과제 자체를 포기하거나 회피하게 되면서(Feltz & Riessinger, 1990) 자녀 양육행동에서도 도전적인 상황을 포기하게 하고 부적합한 양육을 하게 하는 것으로(Coleman & Karraker, 1997; Jones & Prinz, 2005; Teti & Gelfand, 1991)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에서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힌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으면 부모효능감은 낮아지고,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일상활동을 함께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은 부모 양육참여가 낮아진다는 Giallo 등(2013)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와 더불어 부모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영아에게 민감한 반응과 언어적 모델, 반응적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는 박화윤과 마지순(2013)의 연구결과, 그리고 12개월 때 민감한 양육이 24개월 때 민감한 양육을 매개로 36개월 때 유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Barnett 등(2012)의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의 매개적 역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산후 1년 이내의 산후 우울감은 산후 1년, 2년 후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산후 1년 이내의 자아효능감은 산후 1년 이내의 산후 우울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우울

감 수준에 따라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 산후 1년 후와 2년 후의 양육스타일, 그리고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우울감은 산후 1년 후와 산후 2년 후의 양육스타일을 통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우울감이 산후 1년 이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은 산후 1년 후와 산후 2년 후의 양육스타일을 통해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은 만 2세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직접 효과가 없으며 어머니의 자아효능감과 양육스타일을 매개로 한 장기적인 간접효과만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어머니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을 보고한 점을 들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감과 자아효능감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또한 산후 4-9개월 때 산후 우울감은 19~22개월의 시간이 지나도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양육스타일이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결과는 출산 후 어머니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산후 우울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합한 지원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어머니의 우울감과 양육스타일을 매개하는 변인이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이었다는 결과는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재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자아효능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뜻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어머니 변인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어머니 우울감이 지속되고 확대되는데 있어서 어머니와 영아의 특성이나 행동이 호혜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Bornstein, Tamis-LeMonds, Hahn, & Haynes,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감 측정과 더불어 영아의 기질이나 다른 발달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상호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Quevedo et al., 2011)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높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울 지속기간이 길 경우 또는 주 양육자가 어머니가 아닌 경우 자녀의 수용적, 표현적 의사소통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령, 출산경력, 우울 지속기간 등이 자녀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우울감과 양육행동, 그리고 부모의 우울감과 영유아의 언어발달 간의 관련성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Hay et al., 2001, Lovejoy et al., 200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산후 우울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명순 (2010). 영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훈련센터(편), 교사교육 워크샵 자료집, **영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첫 걸음: 영아를 위한 의사소통**(pp.1-13). 서울: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훈련센터.
- 김현 (2010). 영아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 교사 상호작용과 영아 언어능력의 관계,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6(1), 67-93.
- 박화윤, 마지순 (2013).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27-2734.
- 배정이 (2002). 산후 우울의 이론적 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1(4), 572-587.
-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오정순 (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오정윤, 심숙영 (2013). 유아의 사회정서 행동문제와 어머니 관련변인 구조모형분석. **아동과 권리**, 17(1), 79-108.
- 육아정책연구소 (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 (2010).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숙환, 주금정 (2010). 산전-산후 우울 성향 어머니의 6개월 영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특성과 영아의 언어발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8-309.
- 조현주 (2005). **산후 우울증에 대한 종단적 연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 조희원, 우주영(2013). 산후 우울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49-573.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90). Perceived self-efficacy in the exercise of control over AIDS infection, *Evaluation & Program Planning*, 13(1), 9-17
- Barnett, M. A., Gustafsson, H., Deng, M., Mills-Koonce, W. R., & Cox, M. (2012). Bidirectional associations among sensitive parenting, language development, and social competence.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1(4), 374-393.
- Baumwell, L., Tamis-LeMonda M, H., & Catherine, S. (1997). Maternal verbal sensitivity and child language comprehens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2), 247-258.
- Bigatti, S. M., Cronan, T. A., & Anaya, A.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the efficacy of a literacy intervention program.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2(2), 147-162.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Hahn, C. S., & Haynes, O. M. (2008). Maternal responsiveness to young children at three ages: Longitudinal analysis of a multidimensional, modular and specific parenting construct.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867-874.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rennan, P. A., Hammen, C., Andersen, M. J., Bor, W., Najman, J. M., & Williams, G. M. (2000). Chronicity, sever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 with child outcomes at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6(6), 759-766.
- Cogill, S. R., Caplan, H. L., Alexandra, H., Robson, K. M., & Kumar, R. (1986).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on cognitive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British Medical Journal*, 292(6529), 1165-1167.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 Cooper, P. J., & Murray, L. (1998). Postnatal depression. *British Medical Journal*, 316(7148), 1884-1886.
- Cornish, A. M., McMahon, C. A., Ungerer, J. A., Barnett, B., Kowalenko, N., & Tennant, C. (2005). Postnatal depression and infant cognitive and motor development in the second postnatal year: The impact of depression chronicity and infant gender.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8(4), 407-417.
- Feltz, D. L., & Riessinger, C. A. (1990). Effects of in vivo emotional imagery and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 132-143.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L., Thal, D. J., & Pethick, S. J.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5), 1-185.
- Field, T. (1995).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1), 1-13.
- Field, T. (2010). Postpartum depression effects on early interactions, parenting, and safety practices: A review.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1), 1-6.
- Giallo, R., Treyvaud, K., Cooklin, A., & Wade, C. (2013). Mothers' and fathers' involvement in home activities with their children: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role of parental self-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343-359.
- Hay, D. F., Pawlby, S., Sharp, D., Asten, P., Mills, A., & Kumar, R. (2001). Intellectual problems shown by 11-year-old children whose mothers had postal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7), 871-889.
- Henderson, E. N., & Jennings, K. D. (2003). Maternal depression and the ability to facilitate joint attention with 18-month-olds. *Infancy*, 4(1), 27-46.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Jones, T., & Prinz, R. (2005).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 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5(3), 341-363.
-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prmand, S.-L. T., Walters,

- E. E.,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urstjens, S., & Wolke, D. (2001).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over the first 7 years of lif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5), 623-636.
- Lengua, L. J., Honorado, E., & Bush, N. R. (2007). Contextual risk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40-55.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5), 561-592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Child development(user guide for CDS-II). Retrieved February 11, 2007 from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
- Mehta, A., & Sheth, S. (2006). Postpartum depression: How to recognize and treat this common condition. *Medscape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1*(1), 1-8.
- Nicely, P.,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9). Mothers' attuned responses to infant affect expressivity promote earlier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4), 557-568.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9). Chronicity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 functioning at 36 months. *Developmental Psychology*, *35*(5), 1297-1310.
- O' Hara, M. W., & Swain A. M. (1996). Rates and risk of postpartum depression—a meta-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8*(1), 37-54.
- Paulson, J. F., Keefe, H. A., & Leiferman, J. A. (2009). Early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language development.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3), 254-262.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Pungello, E. P., Iruka, I. U., Dotterer, A. M., Mills-Koonce, W. R., & Reznick, J. S. (2009).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parenting on 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44-557
- Quevedo, L., Silver, R. A., Godoy, R., K., Matos, M. B., Tavares, Pinheiro, K. A., & Pinheiro R. T. (2011). The impact of m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on the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at 12 month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8*(3), 420-424.
- Righetti-Veltama, M., Bousquet, A., & Manzano, J. (2003).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on mother and her 18-month-old infant.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2), 75-83.
- Rollins, P. R. (2003). Caregivers' contingent comments to 9-month-old infants: Relationships with later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24*(2), 221-234.

- Sevigny, P. R., & Loutzenhiser, L. (2009). Predictors of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2), 179-189.
- Stein, A., Malmberg, L. E., Sylva, K., Barnes, J., Leach, P., & FCCC team. (2008). The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caregiving, and socioeconomic status in the post-natal year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Development*, *3*(5), 603-612
- Sutter-Dallay, A., Murray, L., Dequae-Merchadou, L., Glatigny-Dallay, E., Bourgeois, M., & Verdoux, H. (2011).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early postnatal vs. chronic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on child development. *European Psychiatry*, *2*(8), 484-489.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 Baumwell, L. (2001).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ren's achievement of language milestones. *Child Development*, *7*(3), 748-767.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5), 918-929.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5).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others: Action research contributions to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9-45.
- Vondra, J., & Belsky,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33). Hillsdale, NJ: Erlbaum.
- Zajicek-Farber, M. L. (2010). The contribution of parenting and postnatal depression on emergent languag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y*, *1*(3), 257-269.
- Zlochower, A. J., & Cohn, J. F. (1996). Vocal timing in face-to-face interaction of clinically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and their 4-month-old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3), 371-374.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aternal post-natal depression on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yle. The data on 1,438 pair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provided by The Korean Children Panel Study (KCPS). Mothers were assessed by K6(Kessler et al., 2002), The Pearlin Self Efficacy Scale(Pearlin et al., 1981), and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Bornstein, et al., 1996).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assessed by K-ASQ.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d path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Post-natal maternal depression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2) Post-natal maternal depression indirectly influenced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via maternal self-efficacy and the parenting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st-natal depression within 1 year will not have an effect on the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directly, but will indirectly influence it through maternal self-efficacy and the parenting style when the children are 2 years old.

▶*Key Words* : *post-natal depression,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maternal self-efficacy, parenting style*

논문투고 2014. 08. 14.  
수정원고접수 2015. 10. 15.  
최종게재결정 2015. 10. 17.

